대전형 지역복지 안전망
함께해U

대전광역시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인권교육실태 및 인식에 대한 연구

책임연구원
이윤경(대전옥계초등학교 교육복지사)

공동연구원
김은영(대전화정초등학교 교육복지사)
김상만(대전변동중학교 교육복지사)

PASS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Daejeon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발 간 사

수많은 복지 사업 중 복지 현장을 반영한 연구가 수행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 현장에서 연구수행에 대한 수요가 발생함에도 사회복지 사업과 연구는 분리되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에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이러한 복지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자 지난 2020년 4월부터 대전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사회복지 민·관·학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참여형 연구 지원사업(대전 지역복지 아카데미)를 처음 실시하였다.

이번 연구는 다양한 연구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돌봄 관련 주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최근의 돌봄 이슈는 아동을 비롯한 노인, 장애인, 사회적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의 최소화하고, 사각지대 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이번 참여형 연구 지원사업(대전 지역복지 아카데미)에서도 주민력을 기초로 하는 마을돌봄 활성화와 2020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노인 커뮤니티케어 식품영양서비스 개발을 통한 노인 영양서비스 체계화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갖는 인권인식과 인권교육 실태에 대해 재조명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 주최한 2020년 참여형 연구 지원사업의 사회복지 현장 연구는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여름철 폭우로 인한 수해복구 작업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현장 연구팀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생생한 복지현장의 연구로 자리매김하며 대전시 복지현장에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대전 시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 개발과 사회복지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연구 수요에 발맞춰 앞으로도 각각의 주체가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전시의 복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0년 12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유 미

차 례

제1장 서론 ·····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제2장 이론적 배경 ····· 9

제1절 인권교육개념 및 대전지역 학생 인권관련 정책 현황 ····· 9

제2절 아동의 인권의식 개념 ····· 16

제3절 아동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7

제3장 연구내용 및 방법 ····· 23

제1절 연구의 목적 ····· 23

제2절 연구대상 ····· 23

제3절 조사도구 ····· 24

제4절 자료분석 ····· 27

제4장 인권교육실태 및 인권의식 분석 ····· 31

제1절 인구사회학적 특성 ····· 31

제2절 아동의 인권교육 경험 ····· 32

제3절 인권실태 ····· 38

제4절 인권의식 ····· 43

제5절 개인영역에 따른 인권의식 차이 ····· 44

제6절 주양육자 양육태도와 인권의식 상관관계 ····· 46

제7절 학교생활만족과 인권의식 상관관계 ····· 46

제8절 지역사회인권의식과 인권의식 상관관계 ····· 47

제5장 결론 및 제언 ····· 51
제1절 대전지역의 인권교육 실태 ····· 52
제2절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 ····· 54
제3절 연구의 한계와 제언 ····· 56

참고문헌 ····· 61
부 록 : 설문지 ····· 63

표/그림 차례

<표 2- 1>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행동계획 ····· 9
<표 2- 2> 시도교육청별 2019년 인권 관련 정책 현황 비교 ····· 12
<표 2- 3> 인권의식의 구성요소 및 영역 ····· 15
<표 2- 4> 아동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하위변인 ····· 16
<표 3- 1> 연구대상 ····· 20
<표 3- 2> 설문지 문항 내용 및 문항 번호 ····· 21
<표 3- 3> 지역사회 인권의식 척도의 문항배열 및 신뢰도 ····· 22
<표 3- 4> 학교생활만족 척도의 문항배열 및 신뢰도 ····· 22
<표 3- 5> 주양육자 양육태도 척도의 문항배열 및 신뢰도 ····· 23
<표 3- 6> 인권의식 척도의 문항배열 및 신뢰도 ····· 23
<표 4- 1> 인구사회학적 특성 ····· 27
<표 4- 2> 최근 1년간 학교 밖 인권교육 경험 ····· 28
<표 4- 3> 1년간 학교 내 인권교육 경험 ····· 29
<표 4- 4> 1년간 학교 내 인권교육 시간 ····· 29
<표 4- 5> 학교 내 인권 교육 강사 ····· 30
<표 4- 6> 인권교육의 효과 및 만족도 ····· 30
<표 4- 7> 내용별 인권 교육 경험 ····· 31
<표 4- 8> 내용별 인권 교육 필요 정도 ····· 32
<표 4- 9> 학교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 요구 ····· 33
<표 4-10> 최근 1년간 학교 내외 인권 관련 활동 ····· 33
<표 4-11> 학교생활에서의 인권실태 ····· 34
<표 4-12> 교사로부터 인권침해 경험여부 ····· 35
<표 4-13> 교사로부터 인권침해 유형 ····· 35
<표 4-14> 학교생활에서의 인권실태 ····· 36
<표 4-15> 지역사회 인권인식 정도 ····· 37
<표 4-16> 학교생활만족도 ····· 38

〈표 4-17〉 주양육자 양육태도 ····· 38
〈표 4-18〉 학생의 인권판단 ····· 39
〈표 4-19〉 학생의 인권행동의사 ····· 39
〈표 4-20〉 학생의 인권감수성 ····· 39
〈표 4-21〉 개인영역에 따른 인권의식 차이 ····· 41
〈표 4-22〉 주양육자 양육태도에 따른 인권의식 차이 ····· 42
〈표 4-23〉 학교생활만족에 따른 인권의식 차이 ····· 42
〈표 4-24〉 지역사회 인권의식에 따른 인권의식 차이 ····· 43

[그림 2-1] 리스터의 인권교육 3요소 ····· 10

제1장 서 론

제1장 서 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39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인권이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이자 인종, 종교, 문화, 국가를 초월한 유일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합의된 가치로서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말한다(이양희, 2018 재인용). 또한, 인권은 '인간의 생득권' 이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핵심적 가치이자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가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1948년 UN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의 고유의 권리에 관한 선언으로 인권에 대한 세계 표준이 되었으며, 이후 9개의 조약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1989년 11월에 UN에서 채택된 된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은 모든 인권의 영역을 포괄하는 최초의 국제협약이며 196개국의 비준국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법이다.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 인권이란 아동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보호와 관리에 대한 배려이다. 아동에 대한 권리는 모든 부모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국가가 제공하는 보편적인 교육을 받으며 적절한 형법의 적용을 받아 인간의 독자성을 발휘하는 권리를 말한다. 즉 아동 인권은 인간으로서 기본 권리이자 동시에 아동이기 때문에 보호받을 권리라는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1989년 11월 UN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이 1990년 9월 국제협약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에 이 협약을 비준하면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었다. 하지만 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에도 아동의 인권은 실제적으로 보장받지 못했고, 아동학대와 방임, 학교폭력, 차별과 같은 아동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역량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외가 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학교는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환경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바람직한 인성을 쌓아가는 전인교육의 장이다. 또한, 학교는 학생들에게 인격의 기초를 닦고 사회적인 존재로 성장하도록 교육하는 곳이다. 따라서 아동이 학교생활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적 발달을 경험하는 것은 성인기에 경험하게 될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이진숙, 2011). 또한, 학교는 아동・청소년의 시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며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인권의 의미와 실천방안을 교육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인 학교 안에서의 인권존중의 경험과 교육은 인권의식과 감수성의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나 학교 주변 환경이 늘 아동에게 안전한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다문화가정, 계층 성별로 인한 차별과 편견, 학습포기 등이 야기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중, 고등학교에서 주로 인권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었으나 초등학교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들이 되었다.

최근 학생 인권침해와 관련된 다양한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되고 있다. 일례로 공립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 A씨는 선수에게 수시로 욕설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A씨가 소속된 체육회 회장에게 권고했고 해당 초등학교장에게는 운동부 학생선수에게 대한 정기적 상담과 지도자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2019년에 인권위원회의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선수 19%가 언어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초등학생 응답자의 12.9%였다(연합뉴스, 2020). 또한, 2019년 7월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창밖으로 우유를 던진 일을 묻는 과정에서 학생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을 꿇리고 의자를 집어 던졌다는 내용이 진정 되었다(서울신문, 2020). 이것은 비단 다른 지역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최근 대전에서는 학생들이 교내에서 당한 성희롱을 고발하는 ‘스쿨미투’로 대전시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으로 ‘스쿨미투’ 의혹과 관련해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9명이 직위해제 됐다(연합뉴스, 2020). 그리고 이와 비슷한 ‘스쿨미투’로 경찰 조사를 받던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자살하는 일도 있었다(연합뉴스, 2018).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실태와 함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삶의 기반인 대전지역의 인권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센터도 2005년에 설치한 부산보다 9년여 늦은 2014년에 설치하였다. 이것은 광주, 대구의 타 광역시 중에서 제일 늦게 설치가 된 것이다. 또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 등 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

도록 제정한 학생인권조례가 2010년에 제정된 경기도를 필두로 광주시, 서울시, 전북 등에서 차례로 공표되어 왔다. 그러나 대전광역시는 2019년 대전지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79%의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한 학생인권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다. 이 설문에 참여한 61% 이상의 중・고등학생이 학교에서의 정기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하였으며 학교에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누군가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중학생 74.9%, 고등학생 79.1%가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몰랐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학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전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멀게만 느껴진다.

대전광역시에는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 2014년 교육감 선거 정책 질의에서 의견수렴 후 추진하겠다던 학생인권조례는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2019년 공청회를 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9년 대전광역시 인권정책계획에서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정책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와 성매매 피해 아동 소년 지원,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가출 청소년 가정복귀 등 보호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물론 위기 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매우 필요하고 절실한 상황이지만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이며 아동・청소년 인구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는 학교 아동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정책과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앞에서 말했듯 학교는 아동・청소년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회적 환경이다. 인권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계층, 성별, 인종, 나이, 종교의 차이에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고, 개인적, 사회적 안녕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학교폭력, 왕따, 자살, 자퇴 등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이 학교 청소년의 복지환경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특히 학교 청소년에 대한 인권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김옥기, 2015). 학교 청소년의 문제를 예방하는데 인권보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학교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할 권리 모두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학교 청소년 인권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지난 1994년부터 2017년간 발표된 청소년 인권 논문의 수를 보면 전체 발표 논문의 9.3%를 넘지 못한다(이은주 외, 2019).

사회복지와 인권은 많은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의 실천 이념에는 인권의 이념이 전반적으로 내포하여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인권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교사회복지가 청소년의 현재나 미래를 위한 중

책을 맡고 있다는 전제 아래 학교 청소년에 대한 적정한 복지실천을 위한 학교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선행 검토는 필수적이다(김옥기, 2015).

현재까지의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연구는 주로 아동·청소년의 개인적, 사회적 수준에서 인권실태를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매년 유엔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가 주기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과는 달리 인권교육 현황을 파악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정해숙 외 2011). 대전의 경우 2016년도 대전 청소년 인권네트워크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학생 인권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2015년 대전복지재단에서 실시한 대전 청소년 실태조사에 한 부분으로 인권의식을 조사하였다. 대전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의는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교권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학생 교육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우려와 동성애 조장이라는 오해가 비판의 요지로 종교단체와 보수적인 교육단체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이러한 논쟁의 이면에는 학생을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미성숙한 존재로 간주하여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바라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학생 역시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할 수 있는 자율적 학습 주체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현상들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문화의 변화 없이 실질적인 학생 인권보장으로 연결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인권이 사회적 핵심가치와 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이 인권을 존중하는 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 출발점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는 것과 이를 바탕으로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이쌍철, 2019). 이에 우리는 기초 인성 교육 및 가치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시기에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이 인권감수성을 형성하고 가치의 철학을 생활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대전지역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의 인권의식과 인권교육 실태를 조사하여 앞으로의 대전시의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에서의 대전시만의 인권문화 형성을 구축하기 위한 인권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2장 이론적 배경

이번 장에서는 아동과 인권의 정의, 인권교육, 인권의식에 대한 개념 그리고 대전광역시의 인권교육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제1절 인권의 정의

1. 아동의 정의

아동이란 일반적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혼자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성인의 도움이 필요한 발달단계의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아동을 보는 관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며 시대와 문화 및 국가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며 한 국가 내에서도 관련된 법체계마다, 학자마다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동의 개념을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UN의 아동권리협약에서는 18세 미만까지를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발달 심리학 기준에 의하면 아동을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로 구분하여 성인과 다른 발달적 특성을 지녔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전적 의미로는 “몸과 마음이 아직 완성기에 이르지 않은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서 대략 3세에서 12세까지를 아동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에는 UN 아동권리협약과 마찬가지로 ‘만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아동은 14세 미만으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그 전후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를 가리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연령에 있는 아동을 한정하기로 한다.

2. 아동 인권의 개념

인권은 도덕적이며 이성적인 존재로서 존엄하고 가치있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 것을 보장받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즉,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을 정당하게 요청할 권리다. 또한, 도덕, 정치, 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편적이고 구체적이고 이론적이면서 규범적이며 역사적으로 소수자의 해방적, 복합적 개념이자 프레임이다(오선영, 2016, 재인용).

아동은 어른들의 인식에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되어 있고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통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여겨져 충분하게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되었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모든 사람은 아동기에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 아동은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를 강조하며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아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은 아동의 권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와 아동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해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역사적으로 아동의 권리는 아동 스스로 권리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 아동에 대한 발전적인 인식을 가진 성인들에 의하여 보장되고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전하였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는 아동에 대한 인식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민진홍, 2011, 재인용).

3. 인권교육의 개념

인권이 사회적 핵심가치와 문화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이 인권을 존중하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인권의식의 확대를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유엔은 1994년 인권교육이 인권보장의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여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인권교육 실천을 위한 「유엔인권교육 10년」을 선언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과 이를 구체화한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행동계획」을 2005년부터 5년마다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다(이쌍철, 2019).

〈표 2-1〉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행동계획

구 분	시 기	내 용
1단계	2005 ~ 2009년	- 초 · 중 ·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중점 - 인권교육의 정의, 교육내용, 행동 계획 - 교사 양성과정 및 현직교사 역량 개발을 위한 정책과 교육제도 변화
2단계	2010 ~ 2014년	- 고등교육 단계와 공무원, 군인, 법 집행관 등 전문가 집단의 인권교육
3단계	2015 ~ 2019년	- 1단계 및 2단계 프로그램 이행 강화 - 언론인, 미디어 전문가 대상의 인권교육
4단계	2020 ~	-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자료: 이쌍철 외(2019)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 ~ 2011) 권고안」을 통해 학교 부분 인권교육 핵심 추진과제로 1)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정규 교육과정과 모든 교과에 인권 내용의 체계적 통합·편성, 2)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 개발보급으로 인권교육 강화, 3) 교원의 인권교육 역량 강화, 4) 학교 생활규정 정비 등 인권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5) 인권교육 연구기반 조성을 제시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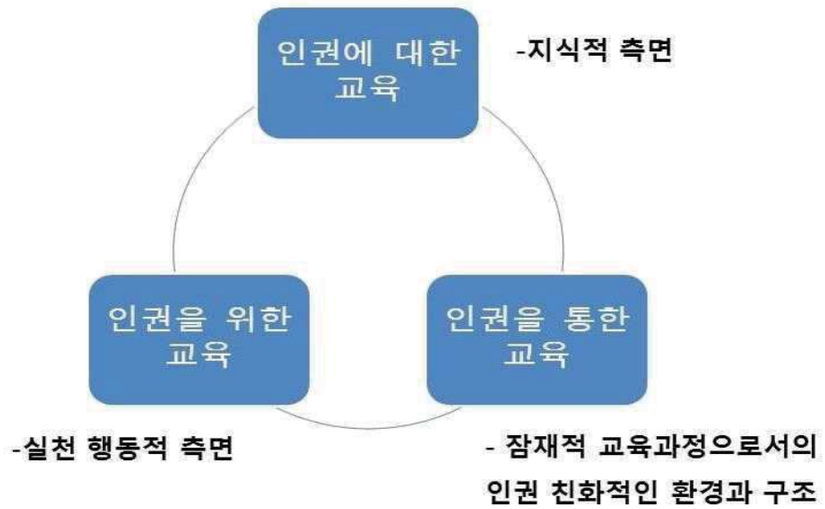
이에 맞춰 2007년 개정 교육과정부터 교과교육과 재량활동 시간의 범교과 학습주제로 인권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며 인권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놨다. 그러나 학교 내 인권교육은 사회/도덕과의 일부 단원에서 다루어지거나 학교 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범교과 학습주제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많으며 그나마 인성교육과 혼재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보면 학교 내 인권교육은 장애인식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인권교육과정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에 한 단원에 인권의 개념이 소개되어 있다. 그 외 특이한 것은 근래 들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노동 인권 문제가 대두되면서 고등학교의 경우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인권교육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각종 국제적 수준의 선언과 규약에서 천명된 '인간으로서 가지는 보편적인 권리들'을 모두가 지켜야 할 가치로 인식하고, 학습자가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McLeod, 2014; 이쌍철 2019, 재인용).

인권교육에 대한 중요한 원칙은 인권교육은 인권을 주제로 하는 특별한 수업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인권을 누리고 경험하면서 내면화되는 삶 그 자체이어야 하는 것으로 인권교육학자인 리스터(Lister)가 제시한 인권교육의 3요소 가운데 인권을 통한 교육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림 2-1] 리스터의 인권교육 3요소



자료: 이은진(2018)

리스터의 인권교육 3요소는 2011년 발표된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에 채택되어 인권교육 구조의 바탕이 된 것으로 '인권에 대한 교육'은 지식적 측면을 강조하여 이 영역의 인권교육에서는 인권의 역사,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의 내용 및 권리의 목록, 다양한 인권 이슈 등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인권을 위한 교육'은 행동적 측면을 강조하여 자신과 타인의 권리가 침해받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활동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 영역에서는 학생들의 참여와 활동을 중요하게 여긴다. 마지막 '인권을 통한 교육'은 잠재적 교육과정과 유사한 개념으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참여와 존중의 원리이다.

학교와 교실의 모든 공간 구성 및 교육 활동 등이 참여와 존중이라는 인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설계되고, 학생들이 실제로 인권을 존중받는 속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으로 인권 친화적인 문화와 구조에 기반한 교육이라고도 한다.

이 인권교육의 3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인권을 통한 교육'으로 학생이 인권의 내용을 잘 알고 또 인권을 위해 행동한다고 해도,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와 교실이 본질적으로 인권의 가치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인권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이다(이은진, 2018).

인권교육은 인지, 정서, 행동의 측면 모두를 아우르는 인권의식의 함양을 도모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인권교육의 방법은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이 아닌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다각도의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고 유엔이 발표한 세계인권교육계획을 보면 1차 초·중등 교육에서의 인권교육, 2차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 그리고 교사 등 전문가의 교육 훈련, 3차 미디어 관계 및 미디어를 통한 인권교육, 4차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는 인권교육이 어느 한 세대만이 필요로 하는 교육이 아닌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의미로 인권교육이 가진 보편성과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총체적 성격을 볼 때 인권교육을 학생들에게 전수되어야 할 교육과정의 일부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령이 시민들을 위한 것이다.

인권교육은 훨씬 넓은 범주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도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할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는다. 앞서 말 한대로 학교의 교육목표는 민주시민 양성으로 인권교육은 타인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 자신의 인권의 중요성과 타인의 인권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는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인권교육이 필요한 것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며, 학령기 아동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중요한 발달단계로 학교는 이런 학령기의 아동·청소년의 민주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중요한 삶의 장소이다.

이 시기에 인권교육은 아동과 청소년이 그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엔의 세계인권교육계획에서도 초·중등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을 기본으로 세운 것과 같이 아동·청소년에게 학교 교육을 통한 인권교육은 인권교육의 3요소 중 인권에 대한 교육과 인권을 통한 교육이 실현되는 장소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 관련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실현하는 시도교육청의 인권교육 관련 정책을 비교한 <표 2-2>를 보면 대전시교육청의 인권교육 관련 정책은 타 시도의 정책과 비교해 특정 영역에 대한 정책만을 제시하고 있어 인권정책의 포괄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 시도교육청별 2019년 인권 관련 정책 현황 비교

분류기준 / 시도교육청	인권친화적, 학교규정문화	학생/교원인권 교육	노동인권교육	성폭력대응, 성인권교육	장애학생 인권보호	학생선수 인권보호
서울특별시	○	○	○	○	○	○
부산광역시	○	○	○	○	○	○
대구광역시	○	-	-	-	○	-
인천광역시	○	-	○	○	○	-
광주광역시	○	○	○	-	○	-
대전광역시	**-**	**-**	**-**	**-**	**○**	**-**
울산광역시	○	○	○	-	○	-
세종특별자치시	○	-	○	-	○	-
경기도	○	○	○	-	○	○
강원도	-	○	-	○	○	○
충청북도	-	○	-	-	○	○
충청남도	○	-	○	-	○	-
전라북도	○	-	-	○	○	-
전라남도	○	○	○	○	○	-
경상북도	○	-	○	-	-	○
경상남도	○	-	-	-	-	-
제주특별자치도	○	○	○	-	○	○

자료: 이쌍철 외(2019)

대전시의 경우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제 5조에 근거하여 대전광역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제2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2012~2016)’ ‘대전광역시 인권증진행동계획(2015~2017)’의 기본방향을 인권정책에 반

영하여 우선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인권 취약계층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권 보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발전시키며, ‘대전광역시 인권정책기본계획(DAP)(2015~2020)’을 수립하여 인권정책을 추진하였다. 2020년은 정책의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그동안 각각의 사업과제나 프로그램에 대해 기본적인 정책의 추진 방향을 수립하는 시기였으며 2020년 5월에 제2차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의 인권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대전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2015)의 내용에서 인권교육의 항목을 보면 인권교육을 인권 제도와 정책의 기반이 되는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주요한 인프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인권을 단순한 지식습득을 넘어 인권이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에 인권교육의 대상으로 공공부분과 취약계층에 대한 시민 인권의식 개선 교육, 시민사회·학교 인권교육 프로그램 제작지원, 직장 내 인권교육 지원 확대, 취약계층 인권 감수성 교육 확대 등의 세부 과제를 세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인권교육계획」에서는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인권을 학습할 때의 환경이 인권친화적이 아니라면 그것이 어떤 식이든 간에 인권교육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뜻(구정화, 2014)으로 인권교육의 장인 학교의 환경과 지역사회의 환경이 인권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 학생들이 경험하는 삶이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면 인권교육은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인지적 교육으로만 전락 될 것이다. 학교의 인권교육이 인권에 관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인권의 가치를 삶 속에 반영하고 실천적 교육이 기획되고 실행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교의 친인권적 문화 형성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제도적, 문화적 기반이 구축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인권교육의 바람직한 접근방법은 인지적 교육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인권을 실천하고 직접 사회에 참여하여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학교 안에서 인권의 개념에 대해 학습하고 스스로가 자신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에게 부여된 인권에 대해 인식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모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수호하고 옹호하며 이 권리를 나와 이웃, 지역사회, 국가가 서로 보장하여 살기 좋은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인권교육의 궁극적 목표이다. 이를 지역사회가 지원함으로써 공동체를 지키고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켜나가며 인권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인권교육이 학교 내의 교육과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제2절 아동의 인권의식 개념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기본적이고도 보편적인 권리를 인권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진 인권에 관한 연구를 보면 초기에는 인권에 대한 담론과 법률적 접근이 주를 이루고 그 뒤에는 인권실태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많은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인권의식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개념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인권의식을 나타내는 데에 '인권의식', '인권인식', '권리의식', '인권상황인식', '인권감수성', '인권태도' 등 다양한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명칭으로 서로 다른 개념을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송영현, 2018).

인권의식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문용린 등(2002)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감수성 지표개발 연구에서 인권감수성을 한사람이 인권을 옹호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인권 관련 상황을 지각·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상황을 인권 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적 과정으로 정의하고 그것이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이라는 세 가지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개념으로 상정하며 인권감수성이라는 개념을 인권의식과 유사하게 이해하였다(송영현, 2018 재인용).

김자영(2012)은 인권의식을 '자신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에게 부여된 다양한 인권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수호하려는 태도'이자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토대로 인권 침해적 갈등 상황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 상황에 놓인 타인의 입장에 공감형 고통을 공유하며, 인권을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행동 의지를 갖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인식이란 사전적 의미로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앎으로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물에 대하여 가지는 그것이 진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념을 말한다. 의식은 인간의 특유한 심리적 활동의 총체를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지식, 감정, 의지라는 일체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객관 세계를 인식하는 기능,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정하여 목적을 세우고 동시에 그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을 위한 계획을 만드는 기능, 결정하고 결단을 내리는 기능, 나아가 행동의 규범 가치설정, 행동, 그 목적과 수단의 평가 기능을 말한다(임석진 외, 2009).

이에 우리는 인권의식을 김자영(2012)이 정의한 인권의식의 개념과 이를 재조직하여 송영현(2018)이 제안한 인권판단력(의지), 인권감수성(정서), 인권행동의사(행동)의 3영역을 인권의식의 구성요소로 보고 설문지 영역을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표 2-3〉 인권의식의 구성요소 및 영역

구성요소	영역	세부 내용
인권판단력	인지	- 인권과 관련된 지식 -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 사회의 인권 보장 수준 인식 - 인권 보장의 정당성 필요성에 대한 신념(인권친화적 태도)
인권감수성	정서	- 인권 침해 상황속의 타인에 대한 공감 - 인권 관련 상황에 대한 느낌 또는 감정
인권행동의사	행동	- 개인/집단적 차원의 인권친화적 행동의사 (인권 문제의 개인적/집단적 해결시도)

자료: 송영현(2018)

제3절 아동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권의식은 인간으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에 대한 개인적 또는 집단적 감정이나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권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사고체계라 말할 수 있다. 이런 인권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이전의 연구에서 찾아보면 인권의식을 설명하는 연구들은 사회학적 관점의 접근 방식과 심리학적 접근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인권에 대한 태도와 행동 차이를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구조적 환경 및 맥락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인권의식이라는 개념을 개인의 영역으로 한정하여 개인이 심리 환경적 요인에 따라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는 주목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에는 각각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데 인권의식에 관한 사회학적 관점의 연구에서는 주로 여론조사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심리 기반 설문에 비해 연구 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하지만 대상의 심층적인 부분을 밝히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Koo, Cheong & Ramirez, 2015; 송영현, 2018 재인용). 개인을 둘러싼 거시적 사회문화적 체계의 영향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하나 개인의 심층적 요소를 다루는 것에 한계가 있고 또한 여론조사의 대상이 사회 전체 구성원으로 '아동'이라는 특정한 연령 집단의 응답만을 따로 분석하거나 문항에도 아동의 발달적 특수성이 고려되기 어렵다. 심리학적 접근법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인권의식을 구분하는 틀이 도덕성 구분의 틀에 기초하여 인권의식의 개념을 도덕성과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인지발달 및 도덕추

론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결과를 해석하는 문제가 있고 또한, 개인의 의식을 설명하는데 있어 가정과 속한 사회문화적 영향 등 거시적 체계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상에서 개인과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요인들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래에 이에 대한 보안으로 Fraser(2004)는 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이론을 기반으로 한 다체계론적인 생태학적 관점을 제시하고,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환경 영역으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과 가족, 학교, 지역사회영역이라는 큰 분류체계로 범주화하여 탐색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송영민, 2018).

<표 2-4> 아동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하위변인

영역	요인
아동 개인 영역	성별
	연령
	성적
	자아존중감
	임원경험
	인권침해 경험
	인권교육 경험
	종교
가정 영역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지지
	가정에서의 인권 침해 경험
	부모의 학력
	가정의 소득 수준
학교영역	학교환경
	교사지지와 친구지지
	학교에서의 인권 침해 경험
지역사회 영역	거주지역의 만족도 및 안정성
	거주지의 도시 농촌유무

자료: 송영민(2018) 재구성

각 영역별 요인의 인권의식에 영향에 대해 송영민(2018)은 4가지 영역 중 학교, 아동 개인, 가정 순으로 인권의식과 상관관계가 높게 나왔는데 이는 아동 청소년의 주 생활무대가 학교

이며, 교사 및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인권의식의 형성 발달에 있어 아동이 학교와 가정에서 존중과 지지를 경험하고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변인들 중 학교생활 만족도와 교사와 친구의 지지가 효과 크기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학교에서의 인권친화적인 경험이 아동에게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교사와 친구들로부터 존중받는 인권친화적인 학교 환경, 그리고 학교에서의 생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와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송영민(2018)의 연구에 따르면 인권교육이 인권의식의 발달 및 형성에 있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발성이고도 지식전달형인 형식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형태로 아동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성 속에서 생활상에서 관련된 경험을 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제3장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장 연구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대전지역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및 교육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학생의 인권 인식 정도를 조사하고 현재 대전지역의 초등학교에서의 인권교육 실태를 알아보았다.

제2절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남녀 학생 32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인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남녀의 비율을 1:1로 맞추어 배부하려고 노력하였으니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조사 기간은 2020년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실시하였고 설문 조사방법은 설문지를 활용한 자료 수집을 하였다. 이번 연구를 위해 총 10개 초등학교에 설문지 400부를 배부하였고 323부를 회수하였다. 특정 숫자에만 일괄적으로 체크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77부를 제외한 323부를 통계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사항은 표 3-1과 같다.

<표 3-1> 연구대상

구분			빈도(N)	비율(%)
학생	성별	남자	171	52.9
		여자	152	47.1
계			323	100

제3절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의 인권교육, 인권실태, 학생의 인권의식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학생용 설문지를 활용하여 사용하였다. 학생용 설문지는 인권교육 현황, 인권실태, 인권의식, 학생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된다. 학생용 설문지의 문항 내용과 문항 번호는 다음의 <표 3-2>와 같다.

<표 3-2> 설문지 문항 내용 및 문항 번호

대영역	소영역	내용	문항번호	측정방법
인권 교육	인권인지	인권 인지 정도	1	4점척도
	교육현황	학교 밖 인권교육 경험	2	이분형
		1년 이내 학교 내 인권교육 경험	3	선다형
		인권 교육 시간	4	선다형
		인권 교육 강사(교육자)	4-1	선다형
		인권교육 효과(지식/이해/기능)	5(1-4)	4점척도
		인권교육 수업 만족도	5(5-7)	4점척도
		내용별 인권교육 경험 및 필요 정도	6	이분형/4점척도
		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요구	7	선다형
		인권 활동 참여 경험	8	이분형
인권 실태		학교생활에서의 인권실태	9	4점척도
		선생님으로부터의 인권침해(경험여부, 유형, 대처 방법)	10(1-2)	이분형/선다형
		인권 의식 정도	11	4점척도
		내 주변의 인권침해 정도	12	선다형
		내 주변의 인권침해 장소	13	선다형
		인권침해 도움 요청	14	선다형
		주변사람으로부터의 인권침해 정도	15	선다형
		지역사회 인권의식 정도	16	선다형
		학교생활 만족도	17	4점척도
		주양육자의 양육태도	18	4점척도
인권 의식		인권판단	19	4점척도
		인권 행동의사	20	4점척도
		인권 감수성	21	4점척도
응답 성향 분석 문항		인권 판단이 높은 학생에 대한 동의 정도	22	4점척도
		인권 감수성이 높은 학생에 대한 동의 정도	23	4점척도
		인권 행동의사가 높은 학생에 대한 동의 정도	24	4점척도
학생 특성		성별	25	이분형
		거주지역	26	선다형
		가족구성	27	선다형
		성적수준	28	선다형
		경제수준	29	선다형

1. 지역사회 인권의식 정도

지역사회 인권의식 정도는 한국교육개발원(2019)의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분석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4개 문항이며 4점 리커트 척도이며 신뢰도는 .694이다.

<표 3-3> 지역사회 인권의식 정도의 문항배열 및 신뢰도

구분	문항수	신뢰도
지역사회 인권의식	4	.694

2.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는 한국교육개발원(2019)의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분석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4개 문항이며 4점 리커트 척도이며 신뢰도는 .836이다

<표 3-4> 학교생활만족도의 문항배열 및 신뢰도

구분	문항수	신뢰도
학교생활만족도	4	.836

3. 주양육자의 양육태도

주양육자의 양육태도는 김현경·김신영(2015)의 주양육자의 양육태도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8개 문항이며 4점 리커트 척도이며 신뢰도는 .915이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주양육자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임을 의미한다.

<표 3-5> 주양육자의 양육태도 문항배열 및 신뢰도

구분	문항수	신뢰도
주양육자의 양육태도	8	.915

4. 인권의식

인권의식은 한국교육개발원(2019)의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분석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인권판단은 8개 문항이며 인권과 관련된 교내외 상황에서 인권존중에 대한 판단을 묻고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에 신뢰도는 .789이다.

인권행동의사는 8개 문항이며 인권침해 상황을 목격했을 때 인권보호를 위해 행동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이며 4점 리커트 척도에 신뢰도는 .783이다.

마지막으로 인권감수성은 8개 문항으로 인권침해를 당하는 타인과 상황에 대한 민감성과 공감을 질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에 신뢰도는 .748이다.

<표 3-6> 인권의식의 문항배열 및 신뢰도

구분	문항수	신뢰도
인권판단	8	.789
인권행동의사	8	.783
인권감수성	8	.748

제4절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의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무응답 및 일괄적인 응답 등의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외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모든 통계 자료는 부호화 과정을 거쳐 설문지별 자료 분석을 하였다. 주요 자료 및 분석 방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포 및 측정요인들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응답자의 인권교육실태, 인권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인권의식의 차이를 분석고자 t-검정 및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4장

인권교육실태 및 인권의식 분석

제4장 인권교육실태 및 인권의식 분석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10곳을 임의로 선정하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했으며 부실응답 설문지 27부를 제외한 총 323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제1절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5~6학년 중에서 표집 된 학생들(N=323)로서 성별은 남학생이 171명(52.9%)이고 여학생이 152명(47.1%)으로 비슷한 성별 분포를 보였다.

주관적 경제 수준으로는 상위권이 26명(8.07%), 중위권이 272명(84.2%), 하위권이 25명(7.7%)으로 중위권이 과반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상위권, 하위권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업능력으로는 매우못함 10명(3.1%), 못함 23명(7.1%), 보통 179명(55.4%), 잘함 83명(25.7%), 매우잘함 28명(8.7%)으로 중위권이 가장 많았고 상위권, 하위권 순으로 조사되었다.

거주지역은 대덕구 52명(16.1%), 동구 46명(14.2%), 서구 113명(35.0%), 유성구 0명(0%), 중구 112명(34.7%)으로 조사되었다.

<표 4-1> 인구사회학적 특성

(N=323)

구분		빈도(N)	비율(%)
성별	남	171	52.9
	여	152	47.1
학년	5학년	113	35.0
	6학년	210	65.0
가족구성원	아버지	286	27.0
	어머니	292	27.5
	할아버지	41	3.9
	할머니	70	6.6
	형, 오빠	99	9.3

	누나, 언니	84	7.9
	동생	166	15.7
	친척(삼촌, 이모 등)	13	1.2
	기타	9	0.8
주관적 경제수준	상	26	8.0
	중	272	84.2
	하	25	7.7
학업능력	매우 못함	10	3.1
	못함	23	7.1
	보통	179	55.4
	잘함	83	25.7
	매우 잘함	28	8.7
거주지역	대덕구	52	16.1
	동구	46	14.2
	서구	113	35.0
	유성구	0	0
	중구	112	34.7

제2절 아동의 인권교육 경험

1. 최근 1년간 학교 밖 인권교육 경험

학생이 최근 1년간 학교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75.9%가 최근 1년간 학교 밖에서 인권교육을 ‘경험한 적이 없다’ 라고 응답하여 초등학생들이 인권교육을 경험하는 장소가 대부분 학교임을 알 수 있다.

<표 4-2> 최근 1년간 학교 밖 인권교육 경험

(N=323명)

구분		빈도(N)	비율(%)
학교 밖 인권교육 경험	있다	78	24.1
	없다	245	75.9

2. 1년 이내 학교 내 인권교육 경험

최근 1년간 학교 안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25명(69.7%)이 학교 안에서 인권교육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잘 모르겠다 79명(24.6%), 없다 17명(5.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 1년간 학교 내 인권교육 경험

(N=321명)

구분		빈도(N)	비율(%)
학교 내 인권교육 경험	있다	225	69.7
	없다	17	5.3
	잘 모르겠다	79	24.6

3. 학교 내 인권교육 시간

학교 내에서 인권교육이 어느 시간에 진행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교과수업시간 70.7%(n=217), 창의적 체험시간(동아리, 학급회의 등) 19.9%(n=61), 생활지도(조회, 종례, 상담시간) 6.8%(n=21), 수업시간 외(방과후 활동) 2.6%(n=8)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과학습시간에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4> 1년간 학교 내 인권교육 시간

(N=307명)

구분		빈도(N)	비율(%)
인권교육 시간	교과수업시간	217	70.7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동아리, 학급회의 등)	61	19.9
	생활지도 시간(조회,종례,상담시간 등)	21	6.8
	수업시간 외(방과후 활동)	8	2.6

4. 학교 내 인권교육 강사

학교 내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강사에 대한 질문을 분석해보면 담임교사 51.7% (n=167), 외부강사 18.6%(n=60), 기타 3.7%(n=12), 상담사 2.8%(n=9), 보건교사 6%(n=2) 순으로 나타났다.

<표 4-5> 학교 내 인권교육 강사

(N=350명)

구분		빈도(N)	비율(%)
학교 내 인권교육 강사	담임교사	167	51.7
	상담사	9	2.8
	보건교사	2	6
	외부강사	60	18.6
	기타	12	3.7

5. 인권교육의 효과

학생이 인권교육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파악한 '지식으로서의 교육효과'는 4점 만점에 3.22로 분석되어 학교 내 인권교육이 지식으로서 교육효과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학생이 인권교육 시간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인권교육 수업만족도 4점 만점에 전체평균 3.50로 나타나 '인권교육의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6> 인권교육의 효과 및 만족도

(N=355명)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지식으로서의 교육효과	255	3.22	.57	1.00	4.00
인권교육 만족도	255	3.50	.47	1.00	4.00

6. 내용별 인권교육 경험 및 필요정도

학교에서 인권교육 특정 권리와 관련된 수업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관해 조사한 결과이다. 학생들은 '폭력과 욕설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에 대한 수업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성적, 외모, 가정형편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순으로 나타났다.

<표 4-7> 내용별 인권 교육 경험

구분		응답수(N)	비율(%)
1) 성적, 외모, 가정 형편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받은적 있다	221	68.4
	받은적 없다	60	18.6
2) 폭력과 욕설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받은적 있다	242	74.9
	받은적 없다	37	11.5
3) 수업 시간(학습권)을 보장 받을 권리를 가진다	받은적 있다	192	59.4
	받은적 없다	82	25.4
4)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소지품 검사, 성적 공개, 가정 현황 공개 등)	받은적 있다	208	64.4
	받은적 없다	69	21.4
5)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받은적 있다	203	62.8
	받은적 없다	73	22.6
6)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 규칙 만들기, 학생회 활동, 동아리 활동 등)	받은적 있다	168	52.0
	받은적 없다	105	32.5
7) 쾌적한 환경과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받은적 있다	176	54.4
	받은적 없다	100	31.0
8) 잘못을 하여 벌을 받을 때 적절한 절차에 따라 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받은적 있다	165	51.1
	받은적 없다	113	35.5
9) 인권을 침해받았을 때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받은적 있다	203	62.8
	받은적 없다	76	23.5

학교에서 인권교육 특정 권리와 관련된 수업이 필요한 정도를 학생이 인식한 조사결과이다. 분석 결과, 인권의 주요 내용 중 필요 정도는 '인권을 침해받았을 때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가 4점 만점에 전체 평균 3.6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쾌적한 환경과 문화활동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가 평균 3.46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잘못을 하여

벌을 받을 때 적절한 절차에 따라 벌을 받을 권리’ 가 평균 3.45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수업시간(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 가 평균 3.02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4-8> 내용별 인권교육 필요 정도

구분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순위
1) 성적, 외모, 가정 형편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307	3.11	1.058	1	4	7
2) 폭력과 욕설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310	3.21	1.0377	1	4	6
3) 수업 시간(학습권)을 보장 받을 권리를 가진다	307	3.02	1.030	1	4	8
4)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소지품 검사, 성적 공개, 가정 현황 공개 등)	312	3.21	1.086	1	4	6
5)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311	3.41	.698	1	4	4
6)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 규칙 만들기, 학생회 활동, 동아리 활동 등)	310	3.37	.702	1	4	5
7) 쾌적한 환경과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311	3.46	.661	1	4	2
8) 잘못을 하여 벌을 받을 때 적절한 절차에 따라 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11	3.45	.660	1	4	3
9) 인권을 침해받았을 때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311	3.65	.567	1	4	1

7.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요구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학교에서 노력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 대상 인권교육 시간을 늘린다’ 가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6.0%,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만든다.’ 25.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내에서 학생의 인권의 대한 교육시간을 늘리고,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9> 학교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요구

(N=320명)

구분	빈도(N)	퍼센트(%)
1) 학생 대상 인권교육 시간을 늘린다	102	31.6
2) 선생님 대상 인권교육 시간을 늘린다	10	3.1
3)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84	26.0
4) 학교를 운영할 때 학생의 참여를 늘린다	38	11.8
5)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만든다	81	25.1
6) 기타	5	1.5

8. 1년간 인권 활동별 참여 정도

학생이 <표 4-10>에 제시된 5개의 교내외 인권 관련 활동에 대해 최근 1년간 참여율을 조사한 결과, 참여율은 전체에서 ‘학교 동아리 활동’ 이 30.7%로 가장 높았고, ‘캠페인 활동’ 이 22.6%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외부기관, 단체주관 행사(백일장, 전시회 등)’ 는 18.6%로 조사되어 응답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10> 최근 1년간 학교 내외 인권 관련 활동

(N=319명)

순위	최근 1년간 학교 내외 인권 관련 활동
1	학교 동아리 활동
2	캠페인 활동
3	자원 봉사 활동
4	SNS(인터넷,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의견 표현하기
5	외부기관, 단체 주관 행사(백일장, 전시회 등) 참여

제3절 인권실태

1. 학교생활 인권실태

학교생활을 살펴보면 '정규수업시간 이외의 교육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가 평균 3.61점으로 학교생활 중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보장해 준다' 평균 3.57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지품 검사를 하거나, 휴대폰 등 물건을 빼앗지 않을 권리' 에서는 평균 3.1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생들이 정규수업시간에 휴대폰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거나 소지품에 대한 불시점검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1> 학교생활에서의 인권실태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 소지품 검사를 하거나 휴대폰 등 물건을 빼앗지 않는다	323	3.18	1.011	1	4
2) 학생들의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에 대해 야단치지 않는다	323	3.43	.954	1	4
3) 학교에 건의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323	3.33	.717	1	4
4) 학생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	322	3.20	.728	1	4
5) 학생 자치 활동(학생회, 학급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321	3.23	.719	1	4
6)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보장해 준다	323	3.57	.652	1	4
7) 정규 수업 시간 이외의 교육활동(방과 후 학교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321	3.61	.622	1	4
8) 다양한 문화 활동(연극, 전시 등)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320	3.34	.642	1	4
9)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19	3.47	.570	1	4
10) 학교에서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적절하게 보호해준다	319	3.40	.595	1	4
11)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의 인권보호에 관심을 기울인다	319	3.32	.604	1	4
12) 전반적으로 학생 인권을 존중한다	319	3.52	.553	1	4

2. 교사로부터 인권침해 경험

학교 내에서 교사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관한 조사결과 3.75%가 교사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인권침해를 받은 학생들이 받은 인권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차별관련(성적, 성별 등에 따른)' 경험이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사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대처방법을 살펴보면 '보호자(부모님, 조부모님)께 말씀드렸다.' 가 41.7%로 가장 높았고, '나쁘다고 생각했으나 그냥 넘어갔다.' 25.0%, '친구나 선후배에게 말했다.' 가 16.7%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보호자 또는 친구와 교사로부터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공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2> 교사로부터 인권침해 경험여부

(N=320명)

구분		빈도(N)	비율(%)
최근 1년이내 선생님으로 인권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	12	3.75
	없다	308	96.25

<표 4-13> 교사로부터 인권침해 유형

(N=12명)

구분	비율
1) 차별관련(성적, 성별 등)	41.7
2) 부당한 체벌 및 언어폭력 관련	8.3
3) 사생활 침해(성적 및 가정형편 공개 등)	8.3
4) 표현의 자유관련(옷차림, 의견제시 등)	8.3
5) 참여권리(학생 자치 활동 제한 등)	8.3
6) 학습할 권리 관련	0
7) 기타	25.0

3. 최근 1년이내 주위 사람으로부터 인권침해 경험 여부

학생이 최근 1년에 주의 사람(부모, 친구, 선배, 이웃사람) 으로부터 받은 인권침해 형태는 '욕이나 무시하는 말을 들었다' 평균 1.40점,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 평균 1.35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 평균 1.34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4> 학교생활에서의 인권실태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	322	1.35	.731	1.00	4.00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	323	1.21	.532	1.00	4.00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	322	1.34	.729	1.00	4.00
4)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	322	1.06	.277	1.00	4.00
5)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장애 등)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	322	1.26	.607	1.00	4.00
6)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 혹은 부모님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	321	1.04	.286	1.00	4.00
7) 때리거나 괴롭힘을 당했다	321	1.15.	.468	1.00	4.00
8) 욕이나 무시하는 말을 들었다	321	1.40	.789	1.00	4.00
9) 성적인 놀림과 강제로 몸을 만지는 행위를 당했다	321	1.04	.225	1.00	4.00
10) 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성적, 가정 형편 등)를 공개하였다	320	1.14	.450	1.00	4.00

4. 지역사회 인권인식 정도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인권인식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4점 척도를 사용했으면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인권의식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분석결과 '우리 동네 사람들은 차별이나 편견이 없고 공정하게 대한다.' 평균 3.32점으로 가장 높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사람들의 인권을 서로 존중한다.' 평균 3.30점, '우리 동네 사람들은 존중하고 배려한다.' 평균 3.28점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지역은 인권침해가 심각하다' 는 평균 1.3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인권인식 정도가 높으며 학생이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인권침해는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15> 지역사회 인권인식 정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 우리 지역주민들은 사람들의 인권을 서로 존중한다	322	3.30	.622	1	4
2) 우리 동네 사람들은 차별이나 편견이 없고 공정하게 대한다	322	3.32	.627	1	4
3) 우리 동네 사람들은 존중하고 배려한다	321	3.28	.669	1	4
4) 우리 지역은 인권침해가 심각하다	321	1.38	.738	1	4

5. 학교생활 만족도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나는 학교 가는 것이 즐겁다' 평균 3.05점, '공부하기 좋은 분위기다' 평균 3.18점,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은 만족스럽다' 문항이 평균 3.3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 평균 1.40점으로 가장 낮았다.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 전체 수준은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16〉 학교생활 만족도

(N=323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 나는 학교 가는 것이 즐겁다	3.05	.778	1.00	4.00
2) 공부하기 좋은 분위기이다	3.18	.702	1.00	4.00
3)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은 만족스럽다	3.36	.689	1.00	4.00
4) 학교를 그만 두고 싶었다	1.40	.756	1.00	4.00
학교생활만족도 전체	2.75	.395	1.25	4.00

6. 주양육자의 양육태도

주양육자의 양육태도를 살펴보면 평균 3.29로 주양육자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임을 알 수 있다. 하위변인으로는 '부모님은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가 평균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님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보다는 왜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신다'가 평균 3.08로 낮게 나타났다.

〈표 4-17〉 주양육자 양육태도

(N:323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 부모님은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3.58	.718	1.00	1.00
2) 부모님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3.39	.754	1.00	1.00
3) 부모님은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집에 돌아올지 알고 계신다	3.29	.808	1.00	1.00
4) 부모님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 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신다	3.08	.863	1.00	1.00
5) 부모님이 화내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신다	3.13	.827	1.00	1.00
6) 칭찬이나 벌을 주실 때에는 내가 이해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3.37	.677	1.00	1.00
7) 나쁜 행동을 했을 때 혼내기 전에 먼저 왜 그것이 옳지 못한가를 설명해 주신다	3.14	.852	1.00	1.00
8)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왜 안 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	3.30	.782	1.00	1.00
주양육자의 양육태도 전체	3.29	.579	1.00	4.00

제4절 인권의식

1. 인권판단

조사대상자의 인권의식수준은 전체평균 2.62점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인권의식과 관련해 학생의 '인권판단'을 분석한 결과 학생의 '인권판단'은 4점 만점으로 볼 때, 전체 평균이 1.82점으로 보통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4-18〉 학생의 인권판단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인권판단	323	1.82	.570	1.00	4.00

2. 인권 행동의사

인권의식과 관련하여 학생의 '인권 행동의사'를 분석한 결과 학생의 '인권 행동의사'는 4점 만점에 전체 평균의 3.00으로 나타났다.

〈표 4-19〉 학생의 인권행동 의사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인권행동 의사	323	3.00	.479	1.75	4.00

3. 인권 감수성

인권의식과 관련된 학생의 '인권 감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 학생의 '인권 감수성'은 4점 만점에 전체의 평균이 3.06로 나타났다.

〈표 4-20〉 학생의 인권감수성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인권 감수성	319	3.06	.477	1.00	4.00

제5절 개인 영역에 따른 인권의식 차이

개인영역에서 인권의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인권의식 차이에서 인권판단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으며, 인권행동의사 및 인권감수성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보이지 않는다.

학년에 따른 인권의식 차이에서 인권판단 평균점수는 5학년 1.75점(SD=.499), 6학년 1.86점(SD=.603)로 6학년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인권행동의사 평균점수는 5학년 2.92점(SD=.408), 6학년 3.04점(SD=.509)로 5학년이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0.11$, $p<0.05$) 인권감수성 평균점수는 5학년 3.06점(SD=.378), 6학년 3.03점(SD=.524)로 인권감수성은 5학년 6학년이 비슷한 수준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0.24$, $p<0.05$).

주관적 경제 수준에 따라 인권의식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 경제상황이 '상' 일수록 인권판단이 높게 나타나고, 주관적 경제상황이 '하' 일수록 인권행동의사 및 인권감수성이 높게 나타났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보이지 않았다.

주관적 학업능력에 따라 인권의식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업능력이 '보통' 일 때 인권판단은 높게 나타나고 인권행동의사는 학업능력이 '매우 잘함' 일 때 높게 나타났으며 학업능력이 '매우 못함' 일 때 인권감수성이 높게 나타났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역에 따른 인권의식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덕구' 가 인권판단 및 인권감수성이 높게 나타났고 인권행동의사는 '동구' 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보이지 않았다.

인권침해에 따른 인권의식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인권침해의 경험이 있을 때 인권행동의사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보이지 않았으며, 인권교육여부에 따른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인권교육을 받았을 때 인권판단, 인권행동의사, 인권감수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4-21〉 개인 영역에 따른 인권의식 차이

구분		인권판단				인권행동의사				인권감수성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성별	남	171	1.85	.594	.325	171	2.96	.519	.081	169	3.00	.513	.548
	여	152	1.78	.542		152	3.04	.429		150	3.10	.429	
학년	5학년	113	1.75	.499	.100	113	2.92	.408	.011*	112	3.06	.378	.024*
	6학년	210	1.86	.603		210	3.04	.509		207	3.03	.524	
주관적 경제수준	상	26	1.84	.709	.713	26	3.06	.544	.545	26	2.92	.675	.386
	중	272	1.82	.266		272	2.98	.469		270	3.05	.455	
	하	25	1.73	.465		25	3.07	.530		23	3.07	.475	
학업능력	매우 못함	10	2.06	.672	.121	10	2.98	.587	.341	9	3.17	.373	.878
	못함	23	1.85	.430		23	2.98	.395		22	3.06	.340	
	보통	179	1.87	.609		179	2.95	.461		178	3.02	.452	
	잘함	83	1.72	.496		83	3.05	.491		82	3.05	.542	
	매주 잘함	28	1.67	.543		28	3.12	.568		28	3.09	.565	
거주지역	대덕구	52	1.92	.540	.556	52	2.98	.581	.436	52	3.15	1.05	.267
	동구	46	1.82	.587		46	3.06	.490		46	2.97	.595	
	서구	113	1.79	.555		113	2.95	.433		113	3.01	.437	
	유성구	0	0	0		0	0	0		0	0	0	
	중구	112	1.80	.570		112	3.03	.468		112	3.11	.451	
인권침해 경험 (교사)	있다	13	1.70	.400	.171	13	3.06	.626	.401	13	2.81	.589	.100
	없다	307	1.82	.307		307	2.99	.473		303	3.05	.479	
인권교육 경험	있다	224	1.82	.567	.910	224	3.02	.495	.140	221	3.08	.442	.410
	없다	97	1.81	.564		97	2.93	.429		96	2.95	.543	

*p<0.05, **p<0.01, ***p<0.001

제6절 주양육자 양육태도와 인권의식 상관관계

주양육자의 양육태도와 인권의식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양육자의 양육태도와 인권판단(r=-.188, p<0.01)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인권행동의사(r=.361, p<0.01), 인권감수성(r=.226**, p<0.01)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즉 주양육자 양육태도가 민주적일수록 인권판단은 낮아지고 인권행동의사 및 인권감수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주양육자 양육태도에 따른 인권의식 차이

구분	인권판단	인권행동의사	인권감수성
주양육자 양육태도	-.188**	.361**	.226**

*p<0.05, **p<0.01, ***p<0.001

제7절 학교생활만족과 인권의식 상관관계

아동의 학교생활만족과 인권의식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생활만족과 인권행동의사(r=.419, p<0.01), 인권감수성(r=.325, p<0.01)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즉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 인권행동의사와 인권감수성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학교생활만족에 따른 인권의식 차이

구분	인권판단	인권행동의사	인권감수성
학교생활만족	-.095	.419**	.325**

*p<0.05, **p<0.01, ***p<0.001

제8절 지역사회 인권인식과 인권의식 상관관계

지역사회 인권인식과 인권의식의 상관관계 분석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인권의식과 인권행동의사(r=.242, p<0.01), 인권감수성(r=.250, p<0.01)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즉 지역사회 인권의식이 높을수록 인권행동의사와 인권감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 지역사회 인권의식에 따른 인권의식 차이

구분	인권판단	인권행동의사	인권감수성
지역사회 인권의식	-.082	.242**	.250**

*p<0.05, **p<0.01, ***p<0.001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5장 결론 및 제언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존재하며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권리이다. 특히 공교육이 시작하는 학교에서는 기본적인 인권을 가르친다. 궁극적으로 인권교육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역량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의 인권의식 및 교육의 실태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인권교육 실태는 주로 학교 현장에서 담임교사의 지도에 의한 인권교육 및 인권 활동이 대부분이었고 그 효과성은 4점 만점에 3.22점이었고 만족도는 4점 만점에 3.50점으로 높았다. 인권 교육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교육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인권교육 필요 정도에 대해서도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생 대상의 인권교육 시간을 늘려야 한다’라는 응답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인권 침해를 받았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응답하였다. 학교 내외 인권 관련 활동으로는 ‘학교 동아리 활동’이 가장 높았고 ‘외부기관, 단체주관 행사 참여’가 가장 낮았다. 인권실태 결과에서는 학교생활에서의 인권실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학교생활 속에서 인권침해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내 인권 인식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대부분이 인권침해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주양육자의 양육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주양육자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학생의 인권 의식에 대해 인권판단, 인권행동의사, 인권감수성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인권판단은 4점 만점에 1.82점, 인권행동의사는 3.00점, 인권감수성은 3.06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요약해 보면 대전광역시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의 인권의식은 높았고 그 만족도도 높았다. 또한, 인권교육 실태는 주로 학교 현장에서 담임교사의 지도에 의한 활동이 대부분이었고 그 효과성과 만족도도 높았다. 하지만 지역사회 내 인권활동은 현저히 낮았고 인권의식 정도 역시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주양육자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일수록 인권의식이 높았다. 이를 바탕으로 대전지역의 인권교육과 학교현장에서의 인권교육, 학생 인권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제1절 대전지역의 인권교육 실태

1. 대전광역시의 인권 활동

2016년에 대전광역시에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에 따라 인권전담부서를 신설하였고 2017년 7월 인권센터를 개소하고 운영하고 있다. 인권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파견하여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권 관련 홍보 및 다양한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학교 현장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없다.

또한, 대부분의 활동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집중되어 있고 인권교육도 노동 인권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이라 초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인권교육은 없다. 본 연구 결과에서 대부분의 초등학생은 담임교사를 통한 정규수업 안에 이루어지는 단편적인 인권교육 및 활동을 통해서 접하는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외부 강사에 의한 학교 내 인권교육 활동의 비율은 18.6%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를 보았을 때 대전시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교육 활동이 필요하며 전문강사의 인권교육 및 활동이 학교 현장 속으로 들어와서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5)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아동 인권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학교 인권교육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이 매년 500만원씩 책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인권전담부서와 인권 관련 조례의 제·개정, 인권실태조사 등이 포함되어 있기에 아동인권 관련한 예산으로는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대전시의 인권 관련 조사 자료 등을 연구하기 위해 접근하거나 검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그간의 대전시에서 한 인권실태 관련 조사 및 연구 자료들을 정리하여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하면 더 많은 연구자들이 대전시의 인권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으리라 보고 상대적으로 연구 활동에서 소외당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실태와 교육조사를 통해 변화 발전하는 모습을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전시에서는 정책적으로 아동인권 교육에 필요한 맞춤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아동 인권에 대한 실태와 인식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본다.

2.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인권교육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는 2019년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의 70% 이상은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했고 이에 인권네트워크에서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당연히 보장돼야 할 학생인권을 위해 즉각 조례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충청헤럴드, 2019. 11. 1.).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은 '학생인권일반에 대한 증진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을 대립 항으로 놓고 사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 결과 학생인권증진과 교권증진에서 엄청난 불균형을 조장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2018년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운영 계획'이라는 문서를 보면 수십 쪽에 걸쳐 소위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기구설치, 지원계획,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 반면에 어디에도 학생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을 내놨는지 찾아 볼 수 없다(대전인권신문, 2018. 9. 27.).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민주시민육성이라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대전시교육청은 학생인권교육 및 활동에 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보면 '학생 대상 인권교육 시간을 늘린다'가 31.6%로 높게 나타났고,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가 26%,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만든다'가 25.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학교 내에서 학생의 인권 교육시간을 늘리고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조례제정 또는 시교육청 정책을 통한 인권교육시간의 확대 및 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현재 마련되어 있는 지원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인권침해 시 보호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인권침해 사례 발견을 위한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인권 침해사례 발생을 지속적인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제2절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

1.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학교의 학생들이 바람직한 학교 환경 속에서 교육받으며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권 존중이 기반이 되는 학교 문화를 창출하여 학교생활 속에서 인권존중의 삶을 통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유병열, 2013 : 248). 학교인권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권리로서 인권에 대해 알게 하고, 인권의 존중과 보호를 위한 실천적 태도 함양을 위한 일련의 교육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구정화 외, 2004 : 17-22). 학생의 인권신장을 위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교사와 학생 그리고 부모 모두가 공감(김옥기, 2015 : 82)은 하고 있지만 이것을 현실화시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와 정책은 학생의 인권의식 및 인권보장에 대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초등학생은 미숙한 존재라는 기본적인 인식은 학생의 독립적인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 학교가 적극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인권교육을 ‘인성교육’으로 여기고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교육이 인성교육, 입시에 필요한 교육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다. 인권교육을 ‘학생을 위하는/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권리의 주체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박하나 외, 2017 : 54-60).

연구 결과를 보면 5.3%의 학생들이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보다 많은 24.6%의 학생들이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해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을 하였다. 그리고 ‘학교 밖 인권 교육 경험’은 75.9%가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앞서 말한대로 학생의 인권교육은 지식 전달의 측면으로만 이루지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접목 되어 질 필요가 있다. 지식으로써 인권을 교육받고 존중받는 학교 환경 안에서 인권을 실제 생활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고 이 실제적 인권교육이 확장되어 지역사회내에서의 여러 활동으로 연결되어 표현이 되는 것 그것이 인권교육의 3요소 중의 인권을 위한 교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 실천 등이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연구 결과에서 보면 우리 학생들은 지역사회내의 활동은 제일 낮다. 많은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 관련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작 학교 내 아동들의 참여 경험은 매우 낮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인권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2. 학교사회복지사의 인권활동

인권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관련해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느냐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2020). 특히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의 인권항목 제1조 인간의 존엄성, 천부인권을 포함해 인권과 핵심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다(황지애, 2019 : 43).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는 대학에서 ‘사회복지윤리와 철학’이라는 과목을 통해 인권교육을 받고 클라이언트를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외부자원을 연결하거나 전문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적극적인 실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례관리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교사가 교육하는 인권교육에 대한 효과와 만족도가 높았고 주로 교과수업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이었다. 하지만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교사의 업무 경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와 반대로 교사의 업무 과중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연구에는 교사의 인권교육강화를 요구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8). 그래서 형식적인 교육으로 인권교육이 끝나지 않게 하기위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인권교육 활동이나 교사 외의 내부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인권교육 활동이 더욱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학생들 대부분이 학교가 아닌 곳에서의 인권교육 활동은 거의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전광역시와 인권센터는 더 적극적으로 학교 현장에 들어와서 인권교육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2018년 12월 사회복지사업법이 일부 개정되며 학교사회복지사가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학교사회복지사는 학생의 심리사회적인 문제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 전체의 변화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학교 내·외부 환경 및 욕구조사, 사례발굴 및 선정 학교 내·외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학교사회복지 개입을 위한 기록 및 평가 등을 학교 안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전문가이다. 학교 안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전문가로 그리고 학교사회복지사를 활용하여 인권교육강사로 양성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인권교육 활동을 할 수 있고 학생의 인권보호에 전면으로 앞장 설 수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9년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 한국 아동· 실태조사 심화분석보고서를 보면 가정, 학교, 사회, 사이버 상의 4가지 환경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한 자기인권평가를 보면 학교에서 존중받고 참여하는 것, 지역사회의 안전도가 높을수록 자기인권평가가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 이런 자기인권평가가 높은 집단의 청소년은 우울, 자살생각과 같은 정신건강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 학업중단율과 청소년 자살율은 타시도에 비해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위의 연구결과는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고 본다.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참여를 높이는 것은 폭력피해 잠재유형에 소속될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자기인권평가를 높이는 것으로 드러나 일상적인 생활지도 및 훈육에서 인권존중 실천전략과 인권친화적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강지영, 2019)

학교에서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원과 지역의 인권친화적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으로 경기도의 몇몇 시에서는 몇 년전부터 이미 학교사회사업을 도입하여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하여 학생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학교 내에서 지역자원을 연계하고 학생들의 실질적 인권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활용 도입을 제안한다. 그래서 대전시의 아동들이 안전하게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3절 연구의 한계와 제언

본 연구를 통해 몇 가지 한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는 대전광역시만의 인권교육실태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대전광역시만의 실태와 한계를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에서도 학생인권 실태조사와 관련된 별다른 활동 및 자료가 없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도 학생인권실태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가 없었다. 이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학생인권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본 연구를 통해 인권교육을 쉽고 다양하게 초등학생에게 접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권교육이 중·고등학교에

집중되어 있고 대전시교육청의 인권교육은 학교폭력, 성폭력, 노동 인권, 장애아동 인권 등에 초점이 되어 있었다. 이에 초등학생을 위한 소소하면서도 장기적인 인권교육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의 공통적인 결론은 주입식 교육과 설문지 조사의 한계라고 판단하였다.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질적 연구를 하지 못한 점과 대전시 5개구의 초등학생의 설문참여비율을 맞추지 못한것의 아쉬움이 있었다. 그와 함께 의례적으로 설문에 응하는 학생들의 태도를 통해 인권교육이 주입식 교육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바탕이 된다면 인권의식은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학업성적이 높다고 해서 또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좋다고 해서 그 만족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기본적으로 습득하는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부 록

참고문헌

강지영 외(2019).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 -한국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 2019 심화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구정화(2014). 일상의 인권경험이 초등학생의 인권인식에 미치는 영향. 시민교육연구, 48(3).

국가인권위원회(2016). 아동청소년의 인권 교재 개발 연구.

김기수 외(2015). 2015년 대전광역시 청소년 실태조사-학생청소년을 중심으로. 대전복지재단 연구보고서.

김옥기(2015). 학교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사회복지적 고찰. 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자영(2012). 청소년 인권의식의 유형 및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진희 외(2018).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 조사 방안연구.

대전광역시(2015). 대전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최종보고서-.

박하나 · 이지혜 · 설양환 · 장원순(2017). 대전지역 두 학교 인권이야기. 사회과교육.

문용린, 문미희, 곽윤정, 김민강, 유경재, 서울대학교, 국가인권위원회(2002). 인권감수성 지표 개발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민진홍(2011). 아동인권 관련 국제조약이 국내 아동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영현(2018). 아동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동선(2018). 학교, 인권을 말하다. 아카데미프레스.

오선영(2016). 아동의 인권침해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권상황인식과 인권감수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 총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병구(2018). 대전시 인권증진 환경과 답답한 대전시교육청. 대전인권신문.

이쌍철 외(2019).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이완정(2003). 아동 연구에서 지켜야할 윤리 기준 연구. 아동과 권리 vol7, no3.

이은주 외(2019).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KCI 국내 학술지 중심으로-AJMAHS. Vol9, No3.

이은진(2018). 인권수업 교실. 인권을 만나다, 지식프레임.
이정민 외(2020). 학생 인권교육을 위한 현장 실천 강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임석진, 윤용택, 황태연, 이성백(2009). 철학사전. 중원문화.
정건희(2008). 청소년인권증진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방안, 블로그
정해숙, 박성정, 구정화, 최윤정(2011).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황지애(2019). 사회복지사의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디트뉴스(2019. 2. 1.). 대전 학생인권 조례 '허태정 역할' 있을까.
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37944
서울신문(2020. 4. 2.). 초등생 멱살잡은 교사 솜방방이 징계 인권단체 반발.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02500181
연합뉴스(2018. 12. 11). '스쿨미투' 고교 교사 아파트 화단서 숨진 채 발견.
https://www.yna.co.kr/view/AKR20181210159651063
연합뉴스(2020. 4. 20). 스쿨미투 의혹에 대전 신일여중·고 교장 등 9명 직위해제.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0141300063?section=search
연합뉴스(2019. 11. 7.). 초중고생 운동선수 2천여명 "성폭력 피해 경험있어".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6189000004
충청헤럴드(2019. 11. 1). 대전지역 학생 70% 인권조례 필요하다.
http://www.ccherald.kr/news/articleView.html?idxno=13796

국가인권위원회(www.humanrights.go.kr)
대전광역시교육청(www.dje.go.kr)
대전광역시청(www.daejeon.go.kr)
대전광역시 인권센터(www.djhr.or.kr)

Koo, J.W., Cheong, B. E., & Ramirez, F. O. (2015), Who Thinks and behaves according to human rights?: Evidence from the Korean national human rights Survey. Korea Observer, 46(1), 53-87

<부 록> 초등학교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분석 설문조사

일련번호		

응답 내용은 통계자료 작성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초등학교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분석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질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사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의 현황과 인권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대전복지재단 참여형 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연구자는 참여자가 작성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정리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학생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33조에 의해 반드시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및 정책개발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응답하기 다소 힘들더라도 **모든 문항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히 조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연구 참여 동의」

본인(학생)은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작성된 모든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본인에게 어떠한 비용이나 위험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을 통해 알고 있으며 연구에 관한 모든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하고 대답을 들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연구자로부터 본인의 익명을 보장한다는 것도 들어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참여자(학생) _____(서명)
연 구 자 _____(서명)

2020년 9월

연구자 김상만, 김은영, 이윤경

학교명	_____ 학교 _____ 학년

Ⅰ. 다음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 인권이란

자유로울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권리 등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 인권교육이란

수업이나 체험활동 속에서 인권이 무엇인지, 어떻게 인권을 지킬 수 있는지 등을 배우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 인권침해란

권력에 의해 인권이 짓밟히거나 해를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1. 인권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는 정도를 선택해 주세요.

① 전혀 들어 본 적 없다 ② 들어는 봤으나 잘 모른다 ③ 대체로 알고 있다 ④ 매우 잘 알고 있다

문2. 최근 1년 동안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문3.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4번부터 작성해 주세요)
② 없다 (☞ 문6번부터 작성해 주세요, 4,5번 미작성)
③ 잘 모르겠다 (☞ 문6번부터 작성해 주세요, 4,5번 미작성)

문4. 최근 1년간(2019년-2020년) 인권교육은 어느 시간에 이루어졌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교과 수업 시간
②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 학급회의 등) 시간
③ 생활지도 시간(조회・종례, 상담 시간 등)
④ 수업시간 외(방과후 활동)

문4-1. 인권교육을 누가 진행 했습니까?

① 담임선생님 ② 상담사 ③ 보건교사 ④ 외부강사 ⑤ 기타(적어주세요:_____)

문5. 인권교육을 통해 알게 된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것을 선택해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인권의 뜻과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2) 나의 인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3)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4)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5) 인권 수업은 재미있었다	①	②	③	④
6) 인권 수업 내용은 이해하기 쉬웠다	①	②	③	④
7) 전반적으로 인권 수업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문6. 다음은 인권의 주요 내용을 제시한 것입니다.

관련 수업을 받은 적이 있는지, 해당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수업을 받은 적이 없더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필요 정도를 생각해 주세요)

학생들은_____.	1) 수업여부		2) 필요정도			
	받은 적이 있다	받은 적이 없다	전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1) 성적, 외모, 가정 형편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①	②	①	②	③	④
2) 폭력과 욕설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①	②	①	②	③	④
3) 수업 시간(학습권)을 보장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①	②	①	②	③	④
4)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소지품 검사, 성적 공개, 가정 현황 공개 등)	①	②	①	②	③	④
5)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①	②	①	②	③	④
6)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 규칙 만들기, 학생회 활동, 동아리 활동 등)	①	②	①	②	③	④
7) 쾌적한 환경과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①	②	①	②	③	④
8) 잘못을 하여 벌을 받을 때 적절한 절차에 따라 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①	②	①	②	③	④
9) 인권을 침해받았을 때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①	②	①	②	③	④

문7.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학교에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① 학생 대상 인권교육 시간을 늘린다

② 선생님 대상 인권교육 시간을 늘린다

③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학교를 운영할 때 학생의 참여를 늘린다

⑤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만든다

⑥ 기타(_____)

문8. 최근 1년 동안(2019년~2020년) 학교 안 또는 밖에서 인권과 관련한 다음의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각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내용	예	아니요
1) 학교 동아리 활동	①	②
2) 자원 봉사 활동	①	②
3) 외부기관, 단체 주관 행사(백일장, 전시회 등) 참여	①	②
4) 캠페인 활동	①	②
5) SNS(인터넷,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의견 표현하기	①	②

II. 다음은 학교생활 및 가정환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문9. 다음은 학교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우리 학교는 _____ .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소지품 검사를 하거나 휴대폰 등 물건을 빼앗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2) 학생들의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에 대해 야단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3) 학교에 건의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학생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5) 학생 자치 활동(학생회, 학급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보장해 준다	①	②	③	④
7) 정규 수업 시간 이외의 교육활동(방과 후 학교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우리 학교는 _____ .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8) 다양한 문화 활동(연극, 전시 등)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9)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0) 학교에서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적절하게 보호해준다	①	②	③	④
11)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의 인권보호에 관심을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12) 전반적으로 학생 인권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문10. 최근 1년 이내 선생님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10-1번부터 작성해 주세요)
② 없다 (☞ 문11번부터 작성해 주세요)

문10-1. 어떤 형태의 인권침해를 받았습니까? 해당 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① 차별 관련(성적, 성별 등에 따른)
② 부당한 체벌 및 언어폭력 관련
③ 사생활 침해(성적 및 가정 형편 공개 등)
④ 표현의 자유 관련(옷차림, 의견 제시 등)
⑤ 참여 권리(학생 자치 활동 제한 등)
⑥ 학습할 권리 관련
⑦ 기타(　　)

문10-2. 선생님으로부터 인권을 침해 받았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주세요.

① 다른 선생님께 말씀 드렸다
② 보호자(부모님, 조부모님 등)께 말씀 드렸다
③ 친구나 선후배에게 말 하였다
④ 외부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⑤ 나쁘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냥 넘어갔다
⑥ SNS(인터넷,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글을 올렸다
⑦ 그냥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였다
⑧ 도움받을 방법을 몰랐다
⑨기타(　　)

문11. 최근 1년 이내 주위 사람(부모, 친구, 선배, 이웃사람 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험을 당한 적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것을 선택 해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5)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장애 등)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6) 엄마나 아빠가 안계신다 혹은 부모님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7) 때리거나 괴롭힘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8) 욕이나 무시하는 말을 들었다	①	②	③	④
9) 성적인 놀림과 강제로 몸을 만지는 행위를 당했다	①	②	③	④
10) 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성적, 가정 형편 등)를 공개하였다	①	②	③	④

문12. (위 문항과 같은 일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나요?

① 전혀 아니다 ② 별로 아니다 ③ 약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문13. (위 문항과 같은 일이) 나에게 또는 내 주변사람에게 주로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① 집 ② 학교 ③ 학원 ④ 놀이터 ⑤ 인터넷(또는 SNS) ⑥ 동네 ⑦ 기타( )

문14. (위 문항과 같은) 경험을 당한 후 누구에게 도움 요청을 하였습니까?

①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② 부모님(보호자) ③ 학교 선생님 ④ 친구들
⑤ 지역사회기관 선생님 ⑥ 기타( )

문15. 최근 1년 이내(2019년~2020년) 주변사람들이 나에게 인권을 침해한 것은 어느 정도 입니까?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	①	②	③	④
2) 담임교사	①	②	③	④
3) 또래친구나 선후배	①	②	③	④
4) 지역사회 기관 선생님	①	②	③	④
5) 이웃사람	①	②	③	④
6) 기타( )	①	②	③	④

문16. 다음은 여러분이 최근까지 주로 생활했던 지역사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 내용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지역주민들은 사람들의 인권을 서로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 사람들은 차별이나 편견이 없고 공정하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3) 우리 동네 사람드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한다	①	②	③	④
4) 우리 지역은 인권침해가 심각하다	①	②	③	④

문17.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학교생활은 어떠했는지, 각 항목을 읽고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학교 가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2) 공부하기 좋은 분위기이다	①	②	③	④
3)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은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4) 학교를 그만 두고 싶었다	①	②	③	④

문18. 다음은 보호자(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등)의 양육태도를 알아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내용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은 내가 방과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2) 부모님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3) 부모님은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집에 돌아올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 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5) 부모님이 화내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6) 칭찬이나 벌을 주실 때에는 내가 이해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①	②	③	④
7) 나쁜 행동을 했을 때 혼내기 전에 먼저 왜 그것이 옳지 못한가를 설명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8)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왜 안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Ⅲ. 다음은 인권 의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 번호에 √ 표 해주십시오

문19. 다음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각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내 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학생들은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옳지 못한 일이라도 어른들의 말을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2) 학교 규칙이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학생들은 정해진 규칙을 지켜야 한다	①	②	③	④
3) 불법으로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경우 인권을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	①	②	③	④
4) 성별에 따라 권리에 차이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5) 회사나 학교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더 존중 받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6)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7)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8)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한 명의 친구를 위해 학교 돈을 많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문20. 다음의 각각의 내용에 대해 자신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나는 _____.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같은 반 친구가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본다면 나서서 도와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2) 외국인 학생이 전학 온다면 먼저 다가가 친해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3) 친구가 인권침해로 고민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도와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4) 선생님들과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있다면 적극 적으로 의견을 낼 것이다	①	②	③	④
5) 지진 등으로 고통 받는 사람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를 하거나 기부를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6) 내 주변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NS(유튜브, 페이스북, 인터넷 등)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7) 나와 관련 없는 사람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서명 운동을 본다면 굳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8) 인권 관련 집회를 본다면 시간을 뺏기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문21. 다음의 각각의 내용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나는 _____.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공부를 못한다고 무시당하는 친구를 보면 안타까운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2)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슬프다	①	②	③	④
3)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는 친구들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4)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5) 동아리 활동이나 학급 활동에 차별받는 친구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	①	②	③	④
6) 장애를 가진 친구가 체육 시간에 함께 하지 못할 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①	②	③	④
7)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과거에 문제를 일으켰던 학생을 먼저 조사한다면, 나는 부당하다고 느낄 것이다	①	②	③	④
8) 누군가 외모 때문에 무시당하는 장면을 보면 기분이 나쁘다	①	②	③	④

문22. 다음 각각의 학생들이 인권의식이 높다는 것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내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 매우 동의한다			
1) A학생은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항상 친구들을 잘 배려하고 돕는다	①	②	③	④
2) B학생은 친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친구들을 기분에 따라 다르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3) C학생은 친구를 존중하지 않으며, 친구들의 의견과 감정에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문23. 다음 각각의 학생들이 인권문제를 잘 받아들이고 느낀다는 것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 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내 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 매우 동의한다			
1) A학생은 주변 친구들의 어려움을 잘 공감하며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돕기 위해 깊이 고민한다	①	②	③	④
2) B학생은 종종 친구들의 문제나 어려움을 이해하고 안타까워하지만, 어떻게 도울지는 고민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3) C학생은 주변 친구들의 어려움을 잘 느끼지 못하며, 자신의 어려움은 각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문24. 다음 각각의 학생들이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내 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매우 동의한다			
1) A학생은 학급에서 항상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2) B학생은 친한 친구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지만, 다른 친구들의 어려움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3) C학생은 반 친구들과 자주 말다툼을 하고 무례하게 친구들을 대한다	①	②	③	④

Ⅳ. 다음은 응답자의 기본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문25.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문26. 학생은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까?

① 대덕구 ② 동구 ③ 서구 ④ 유성구 ⑤ 중구

문27. 학생의 집에서 함께 사는 분들 모두 √해 주세요.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할아버지 ④ 할머니 ⑤ 형, 오빠 ⑥ 누나, 언니 ⑦ 동생
⑧ 친척(삼촌, 이모 등) ⑨ 기타(적어주세요:_____)

문28. 학생의 전 과목 성적(학업능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못함 ② 못함 ③ 보통 ④ 잘함 ⑤ 매우 잘함

문29. 학생의 가정 경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 ② 중 ③ 하

-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현장연구 2020-3]

대전광역시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인권교육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연구

발 행 일 : 2020년 12월
발 행 인 : 유 미
발 행 처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0층(우:34917)
전 화 : 042-331-8910
팩 스 : 042-331-8924
홈페이지 : http://daejeon.pass.or.kr
인 쇄 처 : ㈜하이브

ISBN 978-89-98568-74-0
이 책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있습니다.